

‘노후전기설비 고쳐드려요’

정읍시-한전 전북서부지사
전기안전보안관 현판식 가져
마을 56가구 방문 개보수 봉사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는 9일 옹동면 제내마을 경로당에서 전기안전보안관 현판식을 갖고, 마을 56가구를 방문해 노후전기설비 개보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판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 임종민 서부지사장, 정읍소방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관계자와 마을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전기안전공사와 정읍시 전기적 공무원,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마을 56가구를 대상으로 누전·배선용 차단기, 배선상태, 전기기계기구, 접지 상태 등 전기 안전관리를 중점 점검하고 개선활동을 실시했다.

정읍시와 전기안전공사는 2005년부터 정읍시 전기적 공무원, 유관기관, 공사협회 및 기술인협회 등 전기관련 인력과 함께 농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설비 교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산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는 9일 옹동면 제내마을 경로당에서 전기안전보안관 현판식을 가졌다.

전기안전마을 61개소를 선정해 긴급출동서비스, 무료 전기안전점검과 전기안전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봉사활동을 통해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 누전이나 합선, 차단기 고장 등 주택의 전기고장 발생시 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노후차단기 및 배선기구 교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의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다.

국제의료협력단 15주년 창립 기념 예배는 예수병원 직원, 류영근 이사(효정내과 원장), 장대영 이사(장대영 소아청소년과 원장), 이철호 이사(항도외과 원장), 이순형 이사(이순형내과 원장), 아담 국제의료협력단 미얀마 지부장 등 국제의료협력단 이사가 참여해, 국제의료협력단 류영근 정책연구소장의 인도로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이사진의 특송과 류영근 이사의 기념사로 국제의료협력단의 창립 15주년을 자축했고 창립 기념 떡과 음료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했다.

국제의료협력단은 예수병원 직원, 동문의 참여로 운영되는 예수병원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봉사단체다. 특히, 예수병원의 40년의 역사를 가진 기존 선교회

가 2005년에 지구촌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국제의료협력단 명칭으로 국내의료기관 최초로 NGO로 전환하여 창립했고 2008년에 정부의 KOICA에 등록되어 국내외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봉사는 물론 해외 의료봉사 및 의료인 초청 연수 등 국제교류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국제의료협력단은 지난 4월 3일에 지역사회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나눔과 인술(仁術)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JW중의 봉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국제의료협력단은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매년 해외와 국내 농어촌 의료봉사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다. /김형태 기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지방법원 견학 법조 분야 현장 체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 1학년 학생 32여명이 9일 오후 전주 지방법원 견학을 통해 법조 분야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문경 학부장을 비롯해 학생들은 법원 청사 견학과 홍보영상물을 시청했고,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을 방청했다.

이어 전주지방법원 관내 부장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원에서의 재판과정과 판사로서의 자질, 직업으로서의 판사 업무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박상현 학생(공공인재학부 1학년)은 “이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이번 법원 견학을 통해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재판과정을 실제로 체험해서 유익했고,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졌다”면서, “앞으로 학업에 충실히 임해서 법조인의 꿈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장수경찰서,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고금리대출(일명 ‘대리입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5월 한 달간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리입금’이란, 콘서트 티켓과 같은 물품 구입·게임아이템 구입·도박자금 마련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미만의 소액 현금을 대출해주고 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리입금 행위를 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경우·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리입금’은 피해 청소년이 △보복우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본인 불법행위(도박) 관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어금액이 소액이고, 금전처차 계약이 주로 SNS·메신저를 이용하여 1:1로 이루어짐에 따라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금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국서부발전, 군산FC 시민축구단 전용버스 후원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이 지역인재육성의 일환으로 군산FC(U-15)시민축구단 전용버스를 후원했다.

서부발전 군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군산시청 광장에서 김병숙 사장을 비롯한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박용의 군산시축구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축구협회 소속 시민축구단에 대해 최고급버스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박용의 군산시 축구협회장의 경과보고와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시의회의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차량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은 시민축구단 전용버스 후원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전여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4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했으며(연간 백여명) 각종 교육기자재 지원과 결혼가정 학생들을 위한 후원을 지속하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무주경찰, 이륜차 사망 사고 사고예방 집중 홍보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하고, 계도 및 단속을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홍보 및 계도 후 5월 20일부터 8월 31일 기간에는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주요 계도 및 단속 대상은 이륜차 관련 사망으로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다.

교통관리계는 배달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며 이장단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이 법규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특히 집중 단속 기간에는 교통관리계 및 지역경찰 등 총인원을 동원하여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뿌리 뽑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원주군자원봉사센터, 지역아동센터 인형극 순회 공연

원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모삼중)는 지난 2일 용진 지역아동센터와 8일 이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안부·안전·안심할 수 있는 희망완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형극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다.

깔깔깔 인형극 프로그램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신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원주군 13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총13회 매주 목요일마다 추진될 예정이다.

인형극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업기반의 자원봉사 인형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쉽고 흥미로운 인형극을 통하여 지역 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효과를 기대하면서 점차적으로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이들과 함께 인형극 공연을 함께 관람한 용진 지역아동센터장은 “안부·안전·안심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형극을 통해 적극 알릴으로써 알찬 교육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자원봉사센터, 공공기관 등 연합 재능기부 봉사

무주군자원봉사센터(김인환 센터장)가 주관하고 공공기관, 기업, 봉사단체가 연합하여 맞춤형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을 9일 예체문화관 동경기장 일대에서 전개했다.



이날 무주양수발전소-한전 KPS(전기시설 안전점검 20세대), 무진장소방서(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30세대), 덕유산국립공원(노후주택보수-도배, 장판 2세대)은 소외계층세대 현장방문서비스에 참여하였으며, 전주시-효사랑가족요양병원(한방진료), 전라북도보조기센터(스쿠터 소독 및 세척), 전북신용보증재단(배식봉사) 등 공공기관, 기업, 봉사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을 찾는 무주읍민들에게 다양한 재능서비스를 제공, 8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참여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도봉동, 다문화가족 8명 초청 간담회

남원시 도봉동은 지난 8일 다문화가족의 유대감 증진 및 안정적인 구족을 위해 다문화가족 8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족 간 한국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나누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남원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평등한 가족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다른우리 좋은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부부교육 강의도 병행하고, 복지정책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방법 등의 안내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미야자와야카코(일본)은 “그동안 관공서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봉동주민으로서 한걸음 다 가서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익산경찰, 보이스포싱 예방 국민은 직원에 경찰서장 표창장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는 지난 8일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국민은행 영등동지점 A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직원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경 체크카드의 현금인출한도를 상향시켜달라고 요청하는 피의자(23)의 휴대전화에 당일 입금된 1,000만원 중 70만원이 대구에서 인출된 점 등 보이스포싱 범죄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방지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인출을 예방하는데 협조했다.

경찰에 의하면, 피의자는 보이스포싱 조직의 체크카드 인출 한도를 상향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 찾아가고, 출동 경찰관에게 본인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추궁하던중, 1,000만원이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금으로 밝혀져 불상의 보이스포싱 조직 사기범행의 방조범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수 서장은 “은행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금 인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포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익산=정인천 기자